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년 6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917-622-2471

<http://tltcnyc.org/>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6월 18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우리 선생님" (시, 김용택)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스승" (시, 김종제)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13-16

화두: "제자도(discipleship)? 예수님은 그대의 스승 입니까? 그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꽃 스승" (시, 정연복)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아하 누가 그렇게" (노래 - 김민기, 민중가요)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손바닥을 탁 때려놓고
종달아 너 아프냐
물어본다

우리 선생님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앓혀 놓고
종달아 너 팔 아프냐
물어본다

(시, 김용택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시)

스승

캄캄한 어둠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어
꽃도 나무도 눈을 번쩍 떴으니
새벽, 당신이 스승이다

얼어붙은 땅속에
숨쉬고 맥박 뛰는 소리를 던져주어
온갖 무덤의 귀가 활짝 열렸으니
봄, 당신이 스승이다

정수리를 죽비로 내려치며
한순간 깨달음을 주는 것은
말없이 다가오므로
스쳐가는 바람처럼 놓치지 않으려면
온몸으로 부딪혀 배워야 하는 법

흘러가는 강물과
타오르는 햇불과
허공에 떠 움직이지 않고
바닥을 응시하는 새와
제 태어난 곳을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죽어가는 물고기도
감사하고 고마운 스승이다

죄 많은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사지를 못박히는 일과
생을 가엾게 여기고
보리수나무 아래 가부좌하는 일이란
세상 똑바로 쳐다보라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시, 김종제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13-16

화두: "제자도(discipleship)?, 예수님은 그대의 스승입니까? 그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일자: 2017년 6월 18일

6:20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6:21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6:22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6:23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6:20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6:21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for you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will laugh. 6:22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when they exclude you and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6:23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prophets.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한 마음 한 노래 (시)

꽃 스승

바람에 흔들리는
노랑 들꽃 몇 송이를 보았다.

흔들리면서도
가느다란 몸 흔들리면서도

쓰러지기는커녕
환히 웃고 있는 꽃.

아기손톱만큼이나 되나
저리도 작은 것이

바람의 춤을 추며
태연자약하게 웃고 있다니!

요즈음 삶이 힘들어
자꾸만 마음 약해지려 하는
나에게 꽃은 인생살이의
한 수 툭툭히 가르쳐 준다.

바람 불어와도
겁먹거나 움츠러들지 말라

가볍게 흔들려 주며
즐거이 춤춰라

그러면 바람은
한층 건널 만하다고.

(시, 정연복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아하 누가 그렇게

김민기 작사
김민기 작곡
김민기 노래

(노래)
Em A D Bm Em G A A7

1. 아 하 누-가
2. 아 하 누-가
3. 아 하 내-가

푸 른하-늘 보 여 주 면 좋 겠-네 아 하 누-가
 나 의손-을 잡 아 주 면 좋 겠-네 아 하 내-가
 처 들관-에 풀 잎 이 면 좋 겠-네 아 하 내-가

은 허수-도 보-여 주-면 좋 겠-네 구-름 속-에
 너 의손-을 잡-았 으-면 좋 겠-네 눈-이 눈-이
 시 냇가-에 들-맹 이-면 좋 겠-네 하-늘 아-래

가 리운-듯 애 당 초 없 는 듯 아 하 누-가
 두 터운-벽 가로 놓 여 있 으 니 아 하 누-가
 처 들관-에 부 는 바 람 속 에 아 하 내-가

그 령-게 보-여 주-면 좋 겠-네
 그 령-게 잡-았 으-면 좋 겠-네
 그 령-게 되-었 으-면 좋 겠-네

D ¹Em A

²Em A D Bm Em G A A7

³Em A D Bm Em A D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별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런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멘

*오늘의 기도로 읽은 시는 시인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1882)의 시입니다